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2천219억원 투입

중기부,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2천219억원 투입



소감 밝히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천219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수출국 다변화, 우수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 장려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 1천119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에는 408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존 아마존, 쇼피, 쿠팡 등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 플랫폼도 발굴해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 세계 13개 국가(21개)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